



# 좋은 친구

FRIENDS

2026. 7.

Vol.021



**FRIENDS**

사단법인프렌즈

사단법인 프렌즈는 2006년 오륜교회와 뜻있는 분들이 심은 소중한 씨앗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국제구호개발 NGO로 성장하였습니다.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촌 18개국 29개 사업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1. 선생님의 다정한 가르침과 사랑 속에서, 인도 콜카타 위닝 J.W 프렌즈 학교 아이들은 오늘도 티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2. 방글라데시 치타공 아이에게 수술로 새 삶을 선물한 안경천 후원자님. 의료 봉사 현장의 따뜻한 온기가 후원자님의 미소 속에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반기간 <좋은친구 FRIENDS> vol.021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발행정보 제21호  
발행일 2026년 7월 31일  
발행인 주경훈  
기획편집 (사)프렌즈 대외협력팀  
주소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전화 02-483-5007  
E-MAIL friends@hifriends.or.kr  
Facebook hifriends153  
Instagram friends.ngo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장 이하 가나다 순  
이사장 주경훈(오륜교회 담임목사)  
이사 고일국(오륜교회 목사)  
김명진(크리스탈치과 원장)  
박명례((주)한국생명과학연구소 연구소장)  
박성철(UBA성형외과 원장)  
신현수(코모키이비인후과 원장)  
양승(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옥유수(하나웰니스(주) 대표이사)  
윤승철(전 시카고치과 원장)  
최병룡(밝은누리안과 원장)  
감사 마철현(세무법인 민화 대표 세무사)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신규 후원자분들입니다.

개인 강다윤 강민숙 강소담 강예윤 강찬욱 고영희 공도이 권용은 권채은 권태정 권혜자 권혜정 김효진 김 걸 김경옥 김경희 김계성 김기에 김단아 김대형 김동은 김명희 김미선 김미성 김미정 김선이 김선주 김연광 김영미 김완중 김유진 김윤희 김재균 김정리 김정은 김정현 김지희 김진한 김현우 김혜나 김효림 김희주 민수아 박기영 박대영 박대용 박덕례 박병성 박병창 박성철 박서우 박선영 박성희 박은숙 박은아 박은희 박지을 박진선 배민영 서경아 서동찬 서지우 서진경 석상준 손경선 손준순 송수지 송순여 송영랑 송영신 송은지 송정용 신봉철 신정은 신현희 심리브가 심혜진 안성재 안현희 양광석 양승재 양은유 양태선 여경순 엄현수 엄창희 엄은정 오석원 오인주 오임숙 오지민 왕정애 유예림 유일선 윤나는 윤성배 윤예스더 윤정미 윤정범 윤주은 윤지연 이계림 이다경 이명숙 이미영 이민자 이민하 이사라 이서은 이소영 이수향 이 슬 이시원 이예승 이유림 이이브 이임란 이자윤 이정숙 이정자 이창희 이춘모 이춘희 이혜순 이현경 이해진 이희승 임요한 임점순 임준혁 임형석 임혜정 장현지 전미양 전영숙 전주현 정관영 정기욱 정다솔 정미영 정성경 정성화 정소리 정은희 정지희 정한나 제갈인경 조덕화 조민희 조성아 조연우 조유근 조현이 주민지 진소영 진숙란 차지영 최근혜 최동인 최문정 최선희 최성한 최수영 최수웅 최순웅 최승복 최주형 최지현 한수정 한옥희 한완수 한은애 함비나 허진우 홍순이 황성수 황윤옥 황윤주 황이연

단체 까사델스파 벨리아 부광약품(주) 삼아제약 솔드피렌체 송파마음순정신건강의학과의원 스틸솔루션 헤브리터치  
“프렌즈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ONTENTS

- 04 인사말  
고일국 (사)프렌즈 이사
- 05 해외사업 '하나'  
You are my friends!  
- 기쁨의 도시 콜카타에서 전하는  
위닝 사업장 소식
- 10 해외사업 '둘'  
절망의 땅에 심는 소망의 나무  
- 미얀마 양곤 바나나 학교 이야기
- 13 해외사업 '셋'  
마지막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며  
- 최은서 WFK KOICA-NGO  
봉사단원의 라오스 활동 후기
- 16 특별기획  
모두가 행복한  
내일로 달리는 프렌즈 기차,  
20주년 기념사업의 VIP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9 후원자스토리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쁨  
- 안경천 후원자
- 22 프렌즈 News  
2026 프렌즈 상반기



### 안녕하세요?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시는 모든 분께 따뜻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온 세계가 들썩였던 축제,  
월드컵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평소 축구를  
잘 모르는 이들조차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 시즌이 되면, 작은 공 하나의 움직임에 함께  
울고 웃곤 합니다. 승패를 떠나 다 함께 열광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의 축제’라는 화려한 불빛 이면에는,  
그 온기조차 닿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지극히 평범한  
기쁨조차 허락되지 않는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프렌즈는  
바로 그와 같이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들이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고, 그들의 평범한 하루가  
축제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함께 달려왔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프렌즈  
이사로 섬기며,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1,500여 명 결연 아동들의 눈망울 속에서,  
깨끗한 물 한 모금이 없어 먼 길을 걸어야 했던  
이들을 위한 우물 파기 현장에서, 그리고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던 이들이 다시 희망을 품는 자립의  
현장에서 프렌즈는 언제나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 적잖은 수고와 눈물겨운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지구촌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의 삶이  
축제처럼 즐겁고 환하게 밝아질 수 있다면,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에 함께하시는 모든 후원자님의  
마음에, 프렌즈와 함께 실천하고 행동하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2026년 하반기에도 프렌즈는 이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절망을 희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나가길,  
기쁨이 메마른 곳에 ‘축제 같은 일상’을 선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 **고 일 국**

## You are my friends!

### 기쁨의 도시 콜카타에서 전하는 위닝 사업장 소식



인도 ‘캘커타’라는 옛 이름으로 더 친숙한  
도시, 콜카타. 이곳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숭고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오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영화 《시티 오브 조이》속 의사 패트릭  
스웨이지와 인력거 아저씨가 나누었던 진한  
인간애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콜카타에는 여전히  
수녀님이 보듬었던 가난하고 아픈 이들이,  
그리고 영화 속 인력거 아저씨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도시는 높은 빌딩과 화려한  
쇼핑몰로 채워지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 발전의 온기를 누리지 못한 소외된  
이웃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난 채 여전히  
우리 곁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꿈을 걷는 아이들, 사랑의 빛을 갠 이웃으로

콜카타의 동남쪽 도시 근교에는 화려한 도심의 불빛에서  
밀려난 이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돈을 벌러 온 이들이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곳  
입니다. 이곳의 아버지는 매일 고단하게 릭샤(인력거)를  
끌며 가족의 내일을 사고, 어머니는 이웃 동네의 가사도우  
미로 일하며 씬 없이 손을 움직입니다. 부모의 빈자리 속  
에서 아이들은 홀로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학교에 이름  
만 올려둔 채 가지 못하거나, 어린 여자아이들은 엄마를  
대신해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배움의 기회를 접  
어야 했습니다.

그 척박한 길목에서 저희는 저희가 운영하던 무료 공부방  
의 문을 두드리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부모의 형편에 따  
라 공부방에 오다 말다를 반복하는 아이들을 보며, 이들  
의 교육을 온전히 지켜줄 ‘일대일 결연’을 결심했습니다.  
2012년, 처음 아이들의 손을 잡기 위해 가정을 방문했을  
때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더 시렸었습니다. 돌봄의 결여와  
깊은 가난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배움  
을 지속할 수 있는 울타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후원자님의 사랑으로 성장한 가족  
(타비식, 스트티, 라비식 남매)

저희는 부모님들을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응원하는 한국의 후원자님이 계시니, 아이가 공부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배움을 지속해야만 후원이 이어진다는 약속은 마침내 완고했던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네 곳의 공부방 아이들을 후원자님과 연결하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선물하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2012년에 만났던 작은 아이들이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며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프고 시린 순간마다 누군가 바다 건너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거대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부모의 가슴 아픈 이별 앞에서도 아이들이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후원자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인도는 여전히 조혼 풍습이 깊게 남아있습니다. 영화 《시티 오브 조이》속 인력거 아저씨가 딸의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던 것처럼, 이곳 부모들은 큰 지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딸을 조금이라도 어릴 때 서둘러 결혼시키려 합니다. 콜카타를 ‘기쁨의 도시’라 부르지만, 그 이면은 이토록 역설적이고 애달픕니다. 결연 아동 중 많은 여자아이 역시 기본 교육 과정인 10학년을 마치면 결혼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이른 나이에 결혼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삶을 체념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다시 부모님들을 찾아가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12학년까지, 그 이후까지 저희가 아이의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켜 주세요.” 우리의 진심에 마음을 돌린 부모님들 덕분에 아이들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12학년을 무사히 마친 아이들은 입을 모아 후원자님께 감사사를 고백합니다. 그 시간을 버텨냈기에 이제 자신들의 앞에 조금 더 넓은 세상과 선택지가 놓였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간 아이들도, 곧바로 일을 시작한 아이들도 이제는 “내가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결연 아동들의 부모님 중에는 이제 저희와 뜻을 같이하며 NGO의 동역자로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살린 후원자님을 기억하기에, 가난한 이웃을 돕는 부모의 거친 손을 깊이 이해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은 이미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과거 결연 아동이었던 한 소년은 어엿한 청년이 되어 저희와 함께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자님과 연결하는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사회인이 된 한 청년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저희 J.W 프렌즈 학교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해달라며 소중한 월급의 일부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후원자님께 받았던 ‘사랑의 빛’이, 이제 또 다른 아이들의 꿈을 밝히는 빛으로 대갹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 결연으로 성장해 활동가로 동역하고 있는 수보  
(뒷줄 문 쪽에서 두 번째)

## 소외된 이주민들의 보금자리에 피어난 배움의 꽃.

### J.W 프렌즈 학교

결연 아동들이 사는 곳 중에는 ‘라나부띠야’라는 특별히 더 아픈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콜카타 외곽에 위치한 곳으로, 방글라데시에서 국경을 넘어온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거주증과 신분증조차 불법으로 구해야 했던 이들의 삶은 늘 불안의 연속이었고, 아버지는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일용직 노동자로 거친 삶을 살아냅니다. 이곳의 또 다른 이웃들은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비하르 주’에서 상경한 이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대도시로 왔지만, 정작 삶의 무게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여력은 없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다 보니 부모들은 공립 학교에 이름만 걸어둔 채 아이들을 보내지 않거나, 아예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2013년, 저희는 이곳에서 열세 살 소년 ‘비벡’을 만났습니다. 어릴 적 놀다가 못에 찼었지만 부모의 무지와 가난 때문에 파상풍 주사조차 맞지 못해 몸이 처참하게 뒤틀려 있던 아이였습니다. 다행히 프렌즈와 협력하여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었고, 비벡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비벡처럼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아파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역 안에 작은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희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작은 학교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 사랑과 미래에 대한 기쁨 속에서 자라나게 하자.’ 그 일념 하나로 라나부띠야 지역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경계에 서 있던 불법 이주민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땅조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2014년 간신히 땅을 구입했지만,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오랜 시간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2018년 첫 삽을 떴고, 2019년 10월, 18명의 아이를 처음 모집하여 2020년 3월, 대망의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와 가난한 동네에서 현지어도 아닌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를 열겠다고 하니, “몇 년 하다 그만두겠지”라며 불신하곤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 문을 열자마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지만, 교사들의 뜨거운 열정과 저희를 믿고 아이들을 보내준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학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 졸업을 맞이한 학생들



그리고 지난 12월, J.W 프렌즈 학교의 역사적인 첫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처음 입학했던 아이들 중 9명의 아이가 4학년 과정을 무사히 마친 것입니다. 영어로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하던 아이들을 위해 매일 방과 후 교실을 열어 눈높이를 맞춰준 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저희를 믿고 지지해 준 학부모님들이 함께 눈물 흘리며 축하한 눈부신 졸업식이었습니다. 졸업생 중 6명은 더 큰 명문 영어 학교 진급 시험에 당당히 합격해 입학했고, 3명은 현지어로 운영되는 큰 공립 학교에 진학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제 라나부띠야의 가을은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신입생 모집이 시작되는 10월이 되면 부모들이 먼저 학교를 찾아와 “제발 우리 아이를 입학시켜 달라”라고 부탁드립니다. 모집 정원보다 훨씬 많은 아이가 몰려 안타깝게 선착순으로 마감해야 할 정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가까운 안전한 학교에 다니고, 교정에서 환하게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대하고 성실하게 가르치자, 주눅 들어 있던 아이들의 눈빛에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막힘없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미래를 꿈꿉니다. 그 기쁨 가득한 모습을 보며 학부모들은 이제 주위에 우리 ‘J.W 프렌즈 학교’를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 내일을 꿈꾸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미소야말로 저희가 거둔 가장 달콤한 기쁨의 열매입니다.

#### 가장 소외된 곳에 흐르는 치유의 강물

라나부띠야 지역에서 학교를 운영하며, 저희의 시선은 아이들의 삶을 넘어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의 아픔으로 더 깊숙이 내려갔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변방이다 보니 마을 안에는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꼬박 한 시간이 걸리는 콜카타 시내의 국립 병원까지 가야만 하는 이웃들의 고단함을 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이들이 아파도 근처 구멍가게 같은 약국에서 사 온 알약 몇 알로 버티다 결국 병을 키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본래 J.W 프렌즈 학교 안에는 다친 아이들을 돌보는 양호 교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작은 돌봄을 마을 전체로

확장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작은 보건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보건실의 문이 열리면 온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 진료를 받습니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발견되면 시내 큰 병원으로 신속히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영양제와 비타민을 챙겨드리고, 가정마다 꼭 필요한 기초 의약품을 나누어 줍니다.

의료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던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이 보건소를 통해 치료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따뜻한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보건소를 운영하다 보니 자연스레 학부모들과 이웃들의 삶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교육과 의료라는 가장 따뜻한 두 손으로 주민들의 삶에 더 깊숙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J.W 프렌즈 학교와 보건소는 라나부띠야 지역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영유아 백신 접종이나 노인 안과 검진 등 무상 의료 사업이 열릴 때마다 우리 학교가 중심 기지로 사용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맹렬한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가 마을을 덮칠 때면 주민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몸을 피하는 따뜻한 대피소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도시의 그늘진 외곽뿐 아니라 깊은 시골 마을에도 절실했습니다. 저희는 아동 결연을 함께하고 있는 시골의 파트너 NGO 단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콜카타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야 닿는 외딴 시골 마을, ‘타케서르’입니다. 이곳은 도시 외곽보다 의료 인프라가 더욱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뜻이 있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과



협력하여 일주일에 한 번 ‘이동 진료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매주 거친 비포장도로를 달려와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청진기를 대고 약을 처방해 줍니다. 수술이나 정밀 치료가 필요한 이들은 콜카타의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줍니다. 진료가 있는 날이면 시골 마을 어귀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들어섭니다. 잊힌 줄만 알았던 자신들을 기억하고 기꺼이 찾아와 준 의료진들에게, 주민들은 수줍게 갓 따온 신선한 코코넛을 건네거나 정성스레 준비한 현지 음식을 대접하곤 합니다. 그 따뜻한 눈빛과 마주할 때, 저희 역시 가슴 벅찬 기쁨과 위로를 누립니다.

#### 당신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이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간절한 꿈은 세상의 가장 낮고 소외된 이들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고통이 아닌, 평안함과 기쁨 속에서 존엄하게 숨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저희의 꿈은 이 땅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사랑받고, 자신들의 미래를 마음껏 꿈꾸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훈계로 아이들의 흩어진 꿈을 다잡아주고, 때로는 가난에 지친 부모의 손을 잡고 설득하며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꿈을 이루기 위해, 저희에게는 반드시 ‘친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곁에서 지치지 않고 함께 걸어줄 친구 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의 순간, 소리 없이 다가와 작은 불빛을 밝혀주는 사람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고, 슬픈 일이 닥쳤을 때는 말없이 곁을 지키며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 낙심하여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손을 내밀어 주는 이가 바로 친구입니다. 비록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잊고 지낼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친구의 온기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삶을 지탱해 줍니다. 지구 반대편, 저희와 인연을 맺은 콜카타의 아이들은 바로 그런 기적 같은 친구를 얻은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또한, 프렌즈는 학교와 보건소를 통해 라나부띠야 지역의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었고, 이동 진료소를 통해 타케서르 시골 마을의 선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친구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라나부띠야 지역에 또 하나의 새로운 꿈인 ‘방방곡곡 꿈을 키우는 방과 후 특성화 학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곳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과 갈 곳 없는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빛나는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배움터가 될 것입니다. 영어와 컴퓨터는 물론, 태권도, 미술 등 다채로운 수업을 개설하여 가난이라는 장벽 때문에 묻혀있던 아이들의 꿈과 잠재력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 주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친구입니까?”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사랑의 수고와 후원금은 이곳 콜카타 한 아이의 어두운 삶을 영원히 비춰줄 위대한 등불이 됩니다. 아이들의 삶에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함과 기쁨을 선물하는 ‘가장 귀한 친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기꺼이 곁을 내어줄 선한 이웃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매일 묵도하는 이 경이로운 기쁨과 행복의 여정에, 여러분께서도 친밀한 친구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절망의 땅에 심는 소망의 나무

## 미얀마 양곤 바나나 학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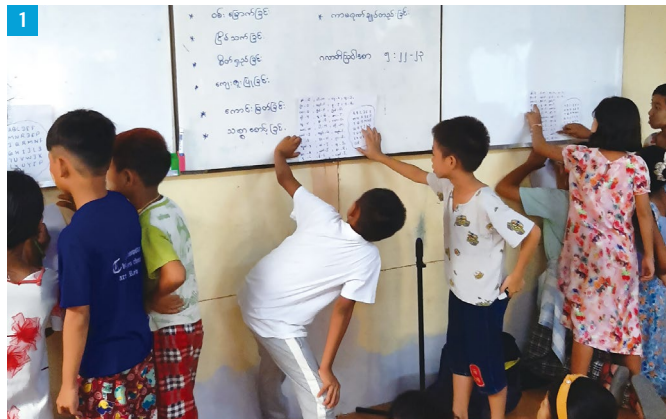
### 무너진 땅, 흩어진 사람들

황금의 땅, 기회의 땅으로 불렸던 미얀마는 오랜 군부 통치로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얀마는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5년째 내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졌고, 그 파탄은 다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미얀마에서 긴급구호가 필요한 국민은 1,500만 명에 이릅니다.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이 하루하루의 생존을 외부의 도움에 기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은 사람들을 고향에서 밀어냈습니다. 집을 잃고 나라 안을 떠도는 피란민이 400만 명을 넘어섰고,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이주한 사람은 600만 명을 헤아립니다. 계속되는 내전은 미얀마를 실질적인 분단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군 정권의 위협이 일상화되면서, 한창 미래를 꿈꾸어야 할 젊은이들이 끌려가지 않기 위해 숨거나 나라를 떠나야 하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식량 위기는 점점 깊어지고, 5년간 누적된 폭력과 상실은 한 사회 전체에 집단적 트라우마를 새겨 놓았습니다. 어른들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상처받는 것은 언제나 아이들입니다.



1 글자 퀴즈를 푸는 아이들  
2 바나나 학교 선생님들



바나나 학교의 아이들

###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곁에서

‘바나나 학교’는 바로 이 아이들 곁에 서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무너져 정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나나 학교’라는 이름은 글을 배우러 온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바나나 한 개씩을 쥐여주었던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나나’는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잘 내리고, 한 그루가 자라면 그 곁에서 또 다른 싹이 돌아 끊임없이 무리를 이룹니다. 이처럼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도 한 아이가 배우고 자라면, 그 곁의 또 다른 아이가 함께 일어선다는 우리의 소망을 담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20여 년간 수많은 아이가 바나나 학교를 통해서 글을 배웠고, 기초 교육을 받았습니

다. 현재 바나나 학교는 9곳의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기초 교육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큰 힘은 헌신된 교사들입니다. 넉넉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품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손길 아래, 많은 학생이 또래 학교 아이들에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는, 오히려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업의 결과가 아니라, “너는 잊히지 않았다”라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 책상을 떠나 일터로 내몰리는 아이들

그러나 현실의 압력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길어지면서, 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어린 자녀까지 손을 보태야 하는 형편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학업을 이어가는 대신 취업전선으로 내몰립니다. 배움이 가장 필요한 나이에 책상을 떠나 일터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학교를 떠난 아이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난은 그렇게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고, 한 아이가 품었을 가능성은 피어나기도 전에 시들어 버립니다. 바나나 학교가 가르치는 일을 넘어, 아이들이 배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삶의 조건들까지 함께 돌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프렌즈 후원으로 한 아이가 누리는 것

이를 위해 ‘프렌즈’와 함께 아동 결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자와 한 아이가 연결될 때, 그 아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돌봄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 장학금입니다. 매달 전해지는 장학금은 아이가 일터가 아닌 책상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버팀목이 됩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수업료를 지원하여 형편 때문에 배움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둘째, 매달의 식량 지원입니다. 식량 위기 속에서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 자체가 배움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정기적인 식량 지원은 아이와 그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과 안정을 지켜 줍니다.

셋째, 과외 교육입니다.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과에 뒤처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넷째, 캠프 활동입니다. 전쟁과 각종 결핍 속에서 웃음과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캠프는 또래와 함께 뛰놀고 회복하는 귀한 숨 쉴 자리가 되어 줍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떨어진 혜택이 아니라, 한 아이의 몸과 마음과 미래를 함께 떠받치는 하나의 돌봄입니다.

### 우리가 함께 채워가야 할 길

바나나 학교는 지금의 모습에 머물지 않고, 아이들을 더 온전히 세우기 위해 다방면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먼저는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기초 컴퓨터 교육을 도입해 새로운 시대의 도구와 가능성에 눈을 뜨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미술 등 예체능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언어를 배우고, 취미와 재능을 발견하여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캠프 점심 식사

또한, 학업을 넘어 실질적으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직업 교육과 연결된 길을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압박 속에 떠밀리듯이 취업하는 것이 아닌, 준비된 상태로 자립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어떤 사람으로 자라느냐가 한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격을 함양하는 품성 교육도 캠프 활동과 연계해 강화하고, 신체적 건강을 돌보는 보건 교육, 집단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한 상담과 정서적 보호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함께 심는 소망의 나무

미얀마의 어둠은 여전히 깊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땅에서도 바나나 나무는 자랍니다. 한 아이가 배움의 자리를 지키고, 재능을 발견하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는 일, 이것은 무너진 이곳 사회 한복판에 다음 세대를 다시 심는 일입니다.

오늘 한 아이의 곁에 서 주시는 여러분의 손길이, 5년의 전쟁이 빼앗아 간 미래를 다시 돌려주는 씨앗이 됩니다.

바나나 학교의 아이들과 함께, 절망의 땅에 소망의 나무를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마지막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며

### 최은서 WFK KOICA-NGO 봉사단원의 라오스 활동 후기



2024년 6월에 WFK KOICA-NGO 봉사단원으로서 라오스 프안밋 학교에 파견되었던 최은서 단원이, 2년간의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 6월 귀국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생활했던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라오스 사람들

라오스 우듬싸이는 지구가 동글다는 게 체감될 만큼 하늘이 맑습니다. 하늘 한번 올려다보기 힘든 한국에서의 삶과는 달리, 여기서는 자주 하늘을 보게 됩니다. 워낙 시야가 트여 있어 고개만 들면 바로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날씨를 짐작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삶이라 하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열악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실제 그런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 이곳이 발전되더라도 변하지 않고 지켜졌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려한 산과 맑은 강 같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있는 그대로 행복할 줄 아는 삶의 자연스러움도 꼭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불편함마저도 감수합니다. 아니, '감수한다'라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풍과 폭우로 발생한 정전이 하루 넘게 이어져 휴대폰 배터리가 다 나가도, 다음 날 아침 햇살로 눈을 뜨고 학교에 나옵니다. 인덕션 대신 모닥불을 피워 밥을 하며, 모닥불 옆에 삼삼오오 모여 떠듭니다. "선생님, 사실은 일을 못 해서 좋아요." 하고 장난스럽게 웃습니다. "나도."라는 대답에 사람들은 킁킁 웃으며 다시 하루를 묵묵히 살아갑니다. 현대 문명이 잠시 멈춰도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의 특성을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시대 도시에 사는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국어 수업에선 '버 다이' 금지!

제가 담당한 한국어 수업에서 항상 강조한 것은 한국어 지식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이곳 학생들은 '버 다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못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시도해 보기도 전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면 쉽게 포기하는 습관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버 다이'라는 말을 금지어로 정하고, 그 말을 하면 점수를 깎았습니다. 대신,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하거나 하면 점수를 아낌없이 주었는데, 점수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방과 후 한국어반 아이들과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 모의고사를 치른 것이 생각납니다. 학교의 한국어 정규 수업 외에 한국어를 좀 더 깊게 공부하는 수업이라, 교사인 저도 준비할 것이 많아 힘든 수업이었습니다. 공부할 것이 더 많고 어려운 수업인데도 한국어가 좋아서 모인 아이들이 참 기특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12명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능력시험 모의고사를 보는 날,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난도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시도해 보기도 전에 '버 다이'라고 말하던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성장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시험 결과는 2급이 2명, 1급이 4명이었는데,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방과 후 고급반 아이들과 편지를 나누며

록 응원의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어 초급반 학생들도 선배들을 따라 시험을 보고 싶다고 해서, 쉬운 난이도의 문제로 구성된 자체 모의고사를 진행했습니다. 점수 발표날, 작은 선물을 전달하며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다고 격려해 주자 더 공부하고 싶다고 글썽거리던 아이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프안밋 학교의 한국어 시간이 계속해서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무엇보다 자신의 삶만큼은 함부로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한 어른으로 사회의 주역이 되면, 언젠가 라오스의 사회도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 배움을 나누며 성장하는 아이들

프안밋 학교 5학년 학생들은 매년 시골 마을 초등학교로 가서 그곳 학생들의 선생님이 되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는 체험학습을 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시골 마을의 초등학생들은 평소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고, 프안밋의 교사와 학생들도 직접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체험학습 동안에는 5학년 학생들의 평소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본인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뿌린 씨앗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확인을 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아 지칠 때가 있기도 했지만, 이런 순간순간들 덕분에 행복하게 2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한 사람을 위해 나선 헌혈

프안밋 학교에 '짠뻏'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짠뻏은 제가 이곳에 있는 2년 동안 7학년 학생 때부터 졸업 후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일하는 모습까지 모두 지켜봐서 더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어느 날, 짠뻏이 평소 앓고 있던 '지중해성 빈혈'로 갑자기 쓰러져 수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프안밋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이 친구를 위해 헌혈하기 시작했고, 저도 혈액형이 같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빈혈도 없고, 특별히 먹는 약도 없었고, 술, 담배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제격이었습니다. 만약, 현지 병원 사정을 잘 모르던 1년 차였다면 망설였을 텐데, 헌혈 정도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프지도 않았고, 간호사님이 내 피가 예쁘다고 말해줬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후, 짠뻏은 다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며 밝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몸속의 피가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까지 수혈로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은 되지만, 밝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잘 지내길 기도합니다.

#### 결국, 선행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

학교에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곳의 다양한 문제들을 직간접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고아가 된 아이들은 이곳에 보육원이라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친척과 마을 사람들의 온정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에 쉽게 노출된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임신하기도 하고, 큰돈을 벌기 위해 마약 운반을 하거나 마약에 중독됩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이기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허무감과 무력감에 시달린 이유는, 제가 이곳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사랑이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더라도, 이 과정을 지나 결국은 선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하루하루 제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 또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단원 활동을 마치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마음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코이카 영프로페셔널 또는 코디네이터에 지원하고 국제 개발협력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비록 개도국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여전히 크지만, 지금이 아니면 이러한 일들을 못 할 것 같아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라오스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제가 책임지고 싶은 이들과 또 다른 곳에서 열악한 시스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나아가고 싶습니다.

삶은 수없이 많은 시작과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오스를 떠난 지금, 앞으로 저에게 주어질 또 다른 시작과 마지막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프안밋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저의 사랑을 전합니다. 프렌즈 가족들께서도 제가 그리고 도전하는 또 다른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



# 모두가 행복한 내일로 달리는 프렌즈 기차, 20주년 기념사업의 VIP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렌즈의 스무 번째 생일,  
더 큰 사랑을 향한 도약이 시작됩니다.

프렌즈가 어느덧 여러분과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온 지  
20년이 되어 2027년 스무 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2006년 오륜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심어주신 소중한 씨앗이 2007년 외교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라는 싹을 틔웠고,  
오늘날 국내 2개 사업장, 해외 29개 사업장에서 지구촌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울창한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겹겹이 포개진 기억의 저장소 속에 반갑고  
그리운 얼굴들과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유년 시절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프렌즈 안에서 함께 자란 결연 아동들, 척박한 삶의 토양을 함께 일궈가며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현지 주민들, 자신의 삶과 때로는 생명까지 이웃을 위해 내어주며  
현장을 지켜낸 활동가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수많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함께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프렌즈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며, 이 모든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어질 향후 20년의 비전을 선포하며, 5대 기념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룰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 한 명 더! Love Plus+ 캠페인

1

지속적인 아동 결연 확대와 신규 협력을 학수고대하는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연 후원의 필요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프렌즈데이' 후원 행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현재 후원을 받는 연 1,500명의 결연 아동을 연 2,500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 후원자님이 한 명의 아동을 더 품어주는  
'한 명 더+' 운동을 전개하여, 전 세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소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 빛나는 동행 : 당신과 우리의 이야기

2

### 20주년 기념 공모전

해외 활동가, 국내외 자원봉사자, 그리고 후원자님께서 후원과 봉사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쌓아온 진솔한 기록을 모으고 감동을 배가시킬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 사진, 영상, 수기

**시상 내역**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모든 수상자에게는 시상과 별개로 2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접수 시기** 2026년 9월 ~ 10월

**활용 방안** 채택된 수상작은 향후 전시회, 기념 영상, e-book, 다이어리 제작 등 20주년  
기념사업 전반에 아름답게 활용됩니다.

※ 세부사항은 9월부터 공개될 프렌즈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20년의 헌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

### 기념식 및 비전 선포

지난 20년간 동행해 주신 감사한 분들을 모시고 기념행사를 갖고,  
다가올 20년을 책임질 '제2기 비전'을 선포합니다.

**주요 내용** 감사 예배, 2기 비전 선포, 감사패 증정, 프렌즈 아너스 클럽(Friends Honors Club, 가칭) 출범식

**추진 시기** 2027년 2월




## 미래로 함께 걷는 기부 걷기 Day

후원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일반 시민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발걸음을 맞추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축제입니다.

**장소·일정** 올림픽 공원, 2027년 4월 예정

**참여 규모** 약 1,500명 ~ 2,000명 내외

**활용 방안** 행사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은 2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위해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4

## 특별한 만남, 20년의 사랑을 만나다

결연아동 및 활동가 초청 행사

프렌즈를 통해 코끝 찡한 유년 시절을 지나 어엿한 성년으로 성장한 해외 결연 아동들과, 현장에서 이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해 온 해외 활동가, 주요 프로젝트 활동가들을 한국으로 특별 초청합니다.

**주요 일정** 후원자와의 만남, K-문화 체험, 주요 명소 투어, 감동의 나눔 시간

**추진 시기** 미정(연계 행사 및 현지 사정에 맞춰 변동)

**대상 인원** 초청 아동 5명 내외, 현지 활동가 5명 내외

5




이와 같은 20주년 기념사업과 프렌즈의 중장기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 펀드 모금을 시작했고, 프렌즈데이를 통해 개인 후원자 40명(총 478만 원)이 참여하였습니다.

|                                                                                     |                                                       |
|-------------------------------------------------------------------------------------|-------------------------------------------------------|
|  | <b>개인 후원 1,004(천사) 프로젝트</b><br>1 나눔 10만원              |
|  | <b>단체 및 기업 후원 1,004(천사) 프로젝트</b><br>1 나눔 100만원        |
|  | <b>전용 계좌 국민은행 777501-04-285414</b><br>(예금주: 사단법인 프렌즈) |

확보된 기금은 20주년 기념사업 및 프렌즈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소중히 사용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프렌즈의 20년 여정은 여러분의 사랑과 함께한 여정이었기에 무엇보다 값지고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아이와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 청년이 된 프렌즈가 꿈꾸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은 무엇일까요? 외적 성장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젊고 활기찬 에너지로 더 깊이, 더 낮은 모습으로, 더 오랫동안 진심을 담아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이웃과 더 큰 사랑을 나누기 위한 ‘프렌즈 20주년 기념 열차’가 행복한 출발을 시작합니다. 이 가슴 벅찬 여정에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열차에 올라 주세요. 창문 너머로 사랑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프렌즈만의 VIP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쁨

## 안경천 후원자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동에서 지방 흡입과 줄기세포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의사 안경천입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프렌즈는 2019년 프렌즈 봉사단을 통해 처음 만나셨지요!  
튀르키예,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여러 팀의 팀장으로 수고해 주셨고, 꾸준히 의료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 네팔 대지진이 계기였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내가 가진 재능을 이럴 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의료봉사자가 너무 많이 몰린 탓에 못 가게 됐죠. 그 해프닝이 오히려 의료봉사를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됐습니다. 그 해 여름, 인도네시아 숄바로 첫 의료봉사를 떠나게 되었고, 그게 제 시작이었어요. 처음 숄바에 갈 때는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때였어요. 저는 크리스천인데 그때는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숄바 현장에서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세 살짜 된 아이가 있었는데 눈 바로 위에 조그만 혹이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많은 아이에게 그 위치에 마취 주사를 놓고 수술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출생신고도 없이 평생 의료혜택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이곳에, 다시없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꼭 수술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함께 봉사하는 분들과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시끄러운 와중에 아이가 잠이 드는 겁니다. 대낮이에요. 그렇게 수술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걸요.



그리고 같은 해 추석 때, 방글라데시로 또 의료봉사를 떠나게 되었어요. 거기서도 머리에 혹이 난 아이를 만났어요. 기도하며 수술을 시작했는데, 세 시간 반 동안 수술하는 내내 아이는 계속 자다가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해외 의료 봉사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현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동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오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는지도 그때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네요! 프렌즈 봉사단 여러 팀 중, 후원자님께서 팀장을 맡으신 팀에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현지 NGO와의 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한국에서 봉사단이 가서 진료하고 오는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의료봉사가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필리핀 타클로반에 갔을 때는 현지 로터리클럽과 협력했고, 말레이시아 쿠칭에서는 현지 NGO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프렌즈라는 한국 NGO가



현장에서 함께 한 든든한 팀원들

해외 현지 NGO와 손을 잡고,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있는 분들을 함께 돕는다는 점, 그게 조금 특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잠깐 봉사하고 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365일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돕고, 그분들이 잘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그렇게 강화된 현지 역량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그게 진짜 봉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팀이 거기 가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활동가분들과 현지 스태프의 힘이 되어 드리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저희의 봉사도 그런 차원에서 대단한 것이 아닌 작은 도움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프렌즈 봉사단에 여러 번 참여하셨는데,**

**활동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나,**

**경험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튀르키예에서 만난 활동가입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셨어요. 목숨을 걸고 헌신하며 그들과 살을 맞대고 일상을 함께한다는 것, 그게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그분도 크리스천이었는데, 특별한 이벤트가 아

니라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후원자님도 이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프렌즈에서 현재 20명의 아동과 결연을 맺고 계시잖아요~**

**결연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직 경제적으로 전혀 회복되지 못했을 때였는데, 그래도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주변 사장님 한 분이 형편이 어려운 아이를 도와주고 계셨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잡혔는데 보호자로 부를 사람이 없다고요. 가서 아이를 타이르려 하니, 아이는 “당신이 뭘래 나한테 그런 말을 하나, 나는 원래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게다가 오늘이 처음도 아니라고요. 그 이후로 사장님은 상처받아 더 이상 못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내가 직접 금전적으로 돕고 관계를 맺으면, 내 안에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어지기가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프렌즈는 현지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계시고, 한국에서는 후원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역할이 둘로 나뉘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연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인도 아이 한 명을 후원한 것을 시작으로 한 명, 두 명, 세 명,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연 후원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기억 남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현지 활동가님을 만났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아, 이분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는구나. 그 사랑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벅찼거든요.

**한편으로는 의사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실 텐데,**

**탈북청년을 위한 후원과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해외 의료봉사 활동만 했기 때문에 해외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탈북민과 소통하고 함께 만나는 팀의 책임을 맡게 되었지요. 사실, 저에게 북한은 늘 머나먼 곳, 관심 밖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을 탈출하여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분들이 통일이 되는 날, 마중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도래하게 될 통일을 먼저 준비하고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느라 정작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탈북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학업을 통해 더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이들과 함께 보육원에 가고, 노숙자분들께 먹을 것을 나눠주는 봉사활동도 하면서 문화적, 정서적 차이를 서로 이해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이 생각하시는 봉사 또는 후원이란 무엇일까요?**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봉사와 후원은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런 쓰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일보다 가장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후원이나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아직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말과 생각으로만 도와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내가 느끼는 기쁨과 평안한 마음이, 받을 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돕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망하고 지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프렌즈와 함께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더 그 크기와 깊이를 넓혀 가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아름답고도 오묘한 기쁨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026 프렌즈 상반기 News



###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제19차 정기총회 개최

2월 28일(토), 오륜비전센터 6층 토비아스에서 프렌즈의 제1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주경훈 이사장의 주재 아래 2025년의 알찬 결실을 돌아보고, 다가올 2026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기쁜 마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박성철 정회원과 양승 후원자를 신임 이사로 맞이하여 더욱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7년,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프렌즈가 한 단계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정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프렌즈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차드의 첫 번째 '학교 보건소', 마하나임 리빙스톤 보건소 개소

'학교 보건'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척박한 차드 땅에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후원자 비전트립을 계기로 시작된 간절한 염원이 모여, 마침내 '마하나임 리빙스톤 보건소'가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보건소를 위해 현지에서 체류하며 자비량으로 봉사한 권태정 간호사와 팀의 헌신으로 벌써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보건소 진료와 오지마을 이동 진료, 학부모 교육 및 보건 교육은 물론, 680명의 교직원과 아이들이 생애 첫 혈액형 검사와 신체 계측을 하며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성장 관리 시스템의 첫 단추를 채웠습니다. 하루 평균 20여 명의 주민이 찾아오는 만큼 벌써 따뜻한 쉼터가 된 이 보건소가 차드 아이들의 성장을 보살피고 주민들의 삶을 채우는 가장 모범적인 희망의 선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코이카 YP와 함께 방문한 인도네시아 PSA 사업장

코이카(KOICA) YP 해외사업 현장 출장 지원을 통해 지난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사업팀 안치훈 과장과 박대용, 김하린 간사가 인도네시아 말랑 PSA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말랑 지역의 PSA는 주민들이 직접 배움의 공간을 내어주고, 학부모들이 간식을 나누며, 마을 위원회를 통해 함께 운영해 나가는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 기간 동안, 총 3곳의 PSA 사업장과 4곳의 학교에서 활동가와 아이들, 학부모들을 만나 현장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민들의 정성과 참여가 만들어낸 기적을 직접 목격하며 PSA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귀한 피드백을 밑거름 삼아, PSA가 아이들에게 더 큰 꿈을 선물하는 공간이 되도록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결실과 시작이 함께하는 WFK KOICA-NGO 봉사단

라오스 프안밋 학교를 사랑으로 섬겨온 최은서, 진다혜 봉사단원이 모든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5일 개최된 'KOICA-NGO 봉사단 성과공유회'에서는 진다혜 단원이 발표자로 참여해, 현지에서 일구어낸 값진 경험과 성과들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며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한편, 선배 단원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2026년 상반기에 파견된 김홍주 단원도 라오스 프안밋 학교에서 설레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김홍주 단원의 활동과 이를 통해 더 크게 성장할 프안밋 학교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150명의 아이들에게 찾아온 봄날의 기적, '프렌즈데이'

지난 4월 12일과 19일, 후원자님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나누는 '프렌즈데이'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구촌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하고, 다가올 설립 20주년 기념사업의 설레는 발걸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내주시는 뜨거운 성원과 온정 어린 후속 참여 덕분에, 총 150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새로운 후원자님과 손을 잡는 기적 같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더불어 프렌즈의 스무 살을 축하하는 기념사업에도 많은 분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프렌즈데이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좋은 친구'로서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해 정성껏 걸어가겠습니다.

### 숨바섬 현지 활동가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인도네시아 숨바섬에서 프렌즈의 소중한 동반자인 현지 활동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책임자인 함춘환, 김성혜 활동가와 5명의 현지인 활동가가 함께하여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후원자분들과 생생한 현장의 숨결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는 오랜 후원에 대한 깊은 감사와 더불어, 숨바섬 주민들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아동 결연 확대 등 내일을 위한 희망찬 밑그림을 함께 그렸습니다. 또한,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매년 숨바섬을 찾아 활동해온 프렌즈 의료봉사단과의 감동적인 재회도 있었습니다. 숨바 활동가들을 비롯해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현지 활동가들께 감사드리며, 프렌즈는 앞으로도 현지와 더욱 긴밀히 동행하며 지구촌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좋은 친구 FRIENDS



사단법인 프렌즈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Tel 02-483-5007 Fax 02-6007-9857 E-mail friends@hifriends.or.kr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사단법인 프렌즈

후원계좌 국민은행 777501-04-111940 / 신한은행 100-023-015009

후원자님의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프렌즈에 꼭 알려주세요!



**FRIENDS**  
사단법인프렌즈

www.hifriends.or.kr

